

## 연인의 길 지리린 로드를 따라 지린가시마 섬까지 걷기

작은 무인도인 지린가시마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. 둘레가 3km인 이 섬은 일년 중 네 달 동안 사쓰마반도와 800 미터 너비의 바다로 가로막힙니다. 그러나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바다 속에서 모래톱이 떠올라 좁지만 걸을 수 있는 바닷길이 나타납니다. 이 모래톱을 지리린 로드라고 부릅니다.

가고시마 만은 깊고 오목하게 패인 칼데라로, 해안선에서 급격히 깊어지는 형태입니다. 지린가시마는 수심이 비교적 얕은 만 어귀에 위치해 있습니다. 3월부터 10월까지는 구로시오 해류가 가고시마 만으로 흘러 들어왔다 빠져나가기를 반복하면서 지린가시마와 본토 사이에 모래가 침전됩니다. 구로시오 해류가 약해지는 겨울 몇 달간은 우세한 북풍이 바다 쪽으로 모래를 밀어내어 모래톱이 사라지고, 섬과 해안은 다시 멀어지게 됩니다.

이 섬이 로맨스를 떠올리게 된 것은 모래톱을 따라 걷다 보면 볼 수 있는 조개껍데기에서 유래합니다. 크기가 비슷한 무딘 새조개(*Lunulicardia retusa*) 껍데기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하트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. 지역의 전설에 따르면, 모양이 같은 껍데기 한 쌍을 찾는 이에게는 사랑이 찾아온다고 합니다. 따뜻한 계절에는 지리린 로드를 따라 걸으며 열심히 완벽한 조개 껍데기 한 쌍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.